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6월 30일(주일) 제1498호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80여 일 앞으로!

7월 14일 '714 기도대성회', 7월 13일 '로잔청년콘퍼런스'
9월 28일까지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 이어져



사진은 지난해 7월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714 기도대성회'.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4차 로잔대회는 오는 9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를 주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막 오른다. 전 세계 222개국에서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정치인, 직장인, NGO, 예술가, 법률가, 교육자, 환경 운동가 등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714 기도대성회’와 ‘로잔청년콘퍼런스’,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가 이어진다. ‘714 기도대성회’는 오는 7월 14일 오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전국 13개 지역 거점 교회에서 열린다. 13개 지역 거점교회는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 성민교회(이해영 목사), 신길교회(이기용 목사), 지구촌교회(최성은 목사), 용인제일교회(임병선 목사), 호산나교회(유진소 목사), 대구동신교회(문대원 목사), 늘사랑침례교회(송호철 목사), 남군산교회(이신사 목사), 광주광천교회(이양수 목사),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제주성안교회(류정길 목사)이다.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성도들은 7월 14일 오후 7시 성민교회(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하면 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7월 2(화)까지 신청하면(02-3215-3313) 된다. 13개 지역 거점 교회 기도회에 참석해도 된다.

‘제1회 로잔청년콘퍼런스’는 7월 13일(토) 오후 2시 신길교회에서 ‘그렇게 살라고 창조

한 거 아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선교한국(사무총장 최읍 선교사)과 한국로잔YLG(Younger Leaders Generation, 대표 오장석 목사)가 주최한다. 로잔청년콘퍼런스에서는 아이자야씨스티원이 찬양예배를 인도하고, 최읍 선교사와 문대원 목사가 강의와 설교를 한다. 선교박람회도 열린다.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lausann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 교회와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한 참가자 한 끼 후원 및 매일 기도가 9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동참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나 아노키(Anoki) 기도 앱에 올라오는 ‘매일 합심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면 된다. 매일 합심 기도문에는 로잔초청 222개국을 위한 기도, 714 기도대성회를 위한 기도, 로잔대회를 위한 기도 등이 쓰여 있다. 후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제4차 로잔대회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은행 231401-04-303854(사단법인 한국로잔)으로 한 끼 식사 비용(2만 원)을 보내면 된다. 후원금을 보낼 때는 본인 이름 또는 공동체(교회) 이름을 작성해야 한다(예: 홍길동(이름) 한끼). 한편 ‘제4차 로잔대회 운영요원 발대식’이 지난 6월 22일(토) 오전 10시 인천 주안장로교회에서 있었다. 목회자와 성도 920여 명이 참석했다. 제4차 로잔대회 운영요원 발대식은 이재훈 목사 개회사, 주승중 목사(인천 주안장로교회) 설교,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 환영사, 한국준비위원회 소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문의: 010-5734-1819,

lausannekor@gmail.com

/ 홍하영, 김다애 기자

하나님의 용사, 다윗!

7~8월 차세대 여름 캠프

올여름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하나님의 용사로 변신한다. 2024 차세대 여름캠프가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주제로 7월과 8월 부서별로 진행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용사 다윗의 신앙을 배운다.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6월 29일(토)부터 7월 21일(일)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7월 6일(토)부터 8월 11일(일)까지 국내 캠퍼스 분당 및 외부에서 여름 캠프를 한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담아요’, ‘말씀을 따라요’를 주제로 QT와 성경 퀴즈, 적용 놀이와 체험활동 등을 한다.

과워워이브(중고등부)는 7월 21일(일)부터 8월 12일(월)까지 외부에서 여름 캠프를 한다. ‘독대(獨對)’를 주제로 찬양집회, 강의, 기도회 등이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안전하고, 건강한 아웃리치!

해외 138개 팀 2,366명,
국내 220개 팀 5,248명 참가

2024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주제로 7~8월 진행된다. 해외 138개 팀 2,366명, 국내 220개 팀 5,248명이 참가한다(6월 28일 기준). 해외 아웃리치에서는 네팔, 일본, 튀르키예, 스리랑카, 몽골 등지에서 선교지 방문, 어린이 사역, 시설 보수 등을 한다. 국내 아웃리치에서는 농어촌교회와 M센터, 기관, 군부대 등지를 찾아가 여름캠프, 어르신 섬김, 마을 잔치, 노방전도, 군부대 위문 등을 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및 여름 캠프 안전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13면). 이에 따라 각 아웃리치팀(부서)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

미디어본부에서 동영상 공모전 ‘썩자, 아웃리치!’를 개최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 등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제작 영상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4)하거나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온누리신문〉에서는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 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 홍하영 기자

양지온누리교회 창립 12주년

6월 29~30일 ‘창립주일 감사예배’

양지온누리교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축하하는 ‘창립주일 감사예배’를 6월 29일(토)과 30일(일) 양지온누리교회 감사무엘홀(본당)에서 드린다. 이날 모든 성도에게 국수를 제공한다.

박철웅 목사(양지온누리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다음세대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다.

양지온누리교회는 2012년 사도행전적 선교 비전을 내걸고, 국내 10번째 캠퍼스 교회로 창립했다(관련기사 12면).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참된 선교적 교회

사도행전 13:1~12

안디옥교회 출현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주어졌으며, 전해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이 정착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리아 안디옥은 30만 명 정도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고,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끼리, 같은 민족끼리 모이기 좋아하고,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 민족과 인종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모범입니다.

안디옥교회 '예언자들과 교사들'

안디옥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가 다소에 있었던 사울을 교사로 초청합니다. 사울이 다소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이 예루살렘교회 유대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를 배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것을 뛰어넘어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 사울을 안디옥교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계 교회 역사의 중요한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사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사울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사울 외에도 여러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들도 사울처럼 바나바에 의해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일컫는 명칭이 '예언자들과 교사들'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나바가 명단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사울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헬라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과 맨 뒤에 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사람을 배열합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명단이 다양한 배경을 보여줍니다. 먼저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유대인입니다. '니게르'는 로마 이름입니다. 시므온은 전통 유대인 이름입니다. 북아프리카, 로마, 유대 등 여러 출신 사람들이 함께 지도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도 초월했습니다. 흥미로운 이름이 나오는데,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다는 것은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랐다는 것은 그

가 로마 제국 시대에 분봉왕으로 임명된 친족 중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특별한 귀족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흥미를 끄는 이름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인종 등 많은 것을 초월하는 세상 사람들끼리만 모이라고 한다면 절대 모일 수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고, 리더십을 형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교회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예루살렘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더 넓게 쓰임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유대 민족 중심의 교회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명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나 장벽이 없는 교회입니다. 단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 사역을 많이 한 교회를 일컫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공동체 내부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복음화란 안디옥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아무리 많이 파송하고, 후원할 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공동체 내부에 벽이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고, 계파가 생기고, 그룹별로 갈등하고 다투면 선교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됨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을 증오하고, 정치사회적으로 공격했던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 출신 시몬도 있었습니다. 마태와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삶을 나뉘어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가롯 유다는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은 어부 출신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첫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으신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달라서 힘든 게 아니라 다르기에 멋있게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화음으로 만들어 낼 수 있고, 인종과 문화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요 17:21).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죄인인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교회처럼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서로 인격의 차이, 선호도의 차이, 방식의 차이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안에서 참된 선교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 듣고, 순종

안디옥교회가 세계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교회가 된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2~3절).

이것이 예루살렘교회와 안디옥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예루살렘교회를 학자들이 선교적 교회의 시초라고 하지 않고, 안디옥교회를 그렇게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흠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룻다와 옴바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외부적 요인, 핍박에 의해 흠어져 수동적인 차원에서 복음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예배 가운데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능동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교회가 만일 스테반의 핍박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없었다면 흠어졌을까요? 결론적으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흠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흠어진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말을 사용하면 '정신없이 사역들로 짙 차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예배와 금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경건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선교사 조성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영길 장로님이 1990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창조과학세미나 통역자로 조성록 목사님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때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일본어를 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성록 목사님이 “나는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성록 목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1994년 3월 30일 조성록 목사님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니 일본이었다. 그러나 내가 머지않아 생을 마치는 날을 생각하면서 일본인을 미워하는 마음과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일본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일본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후의 사명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조성록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사역하신 교회가 지금 일본 비전교회가 돼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성수 장로님은 치과 의사를 정리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자서전에서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중국으로 가겠다는 마음만 있었지 정작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막상 떠나려 하니 놓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았다. 20여 년 동안 변창해 마련한 강남의 좋은 주택, 10여 년 동안 가꾸은 경기도 광주의 농장 등을 비롯해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포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그때 체험한 것 같다.”

그때 최성수 장로님 가족들이 농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족들의 팔 다리가 부러지고, 장로님도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병실에 누워 말씀이 갈급해 성경을 펴셨는데 <누가복음> 12장 20~21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네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 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눅 12:20~21).

최성수 장로님은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아 떠나는 모습을 보는 성도들은 안디옥교회가 터전이고, 마당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 역사에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언제나 영적 싸움에 직면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보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지역은 지중해 ‘키프로스’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1~3차 여행이 나옵니다. 지명도 많이 나옵니다.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강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는 로마의 한 도시로서 지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특히 구리가 많았습니다. 광산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키프로스 지역을 관통할 때 해안선을 따라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산을 넘어 건너갔습니다. 그 이유는 광산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또 그 지역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키프로스의 수도였던 바보(파포스)는 비너

스를 숭배하는 퇴폐적인 도시였습니다.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치가들이 마술사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을 마술사에 맡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 지역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도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의지하고 많은 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술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키프로스 섬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변화된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사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고 순전하게 전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다른 무기는 방어 무기입니다. 방패, 허리띠, 투구 등은 방어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이것이 전해졌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당시 키프로스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이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위축되고 밥그릇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엘루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네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9~11절).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네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일을 본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12절).

이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키프로스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 키프로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 영향력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안디옥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이 후에 뒤집어진 것은 바로 서기오 바울과 같은 총독이 예수 믿었던 일이 출발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 어떤 민족, 어느 인종의 사람들에게도 진리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만 진리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역사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동양에서는 진리라고 받아들이는데 서양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서구에서는 진리라고 받아들이는데 동양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까닭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습관과 문화는 약간 상이할 지라도 동일한 복음을 믿고,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확산하고, 체험하고,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가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운동의 역사(2)



김성욱 교수
(충신대학교, Ph.D)

1)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선교적 책임을 갖는다.

각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의 복음화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복음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행자’(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³¹⁾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수단인 이유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전파를 위해서 유일하게 신적으로 지명된 하나님의 수단이며, 하나님은 선교를 위한 교회 이외의 다른 기관은 갖지 않으신다고 주장하였다.³²⁾ 특히 로잔선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중심에 있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정하신 수단이다”(The church is at the center of God's cosmic purpose and is his appointed means of spreading the Gospel) 라고 명시하였다.³³⁾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와 선교단체와의 차이점을 들면서 교회가 가지는 선교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특징과 선교회의 특징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작품이라면, 선교회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 모인 모임일 뿐이며, 교회가 영원한 신적 기관이라면 선교단체는 선교사역을 위한 일시적인 목적으로 존재한다고 구분하였다.³⁴⁾

2) 효율적인 선교사역을 위해서 성경의 권위는 강조되어야 한다.

에큐메니칼의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교회의 선교사역을 약화시키고 심지어 선교를 폐지하도록 만든 것과 달리, 로잔대회는 복음선교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전적무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특별한 계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³⁵⁾ “그렇게 죄로 소경된 사람들이 그의 뜻과 역사 그리고 이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역사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은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사

전달이 한 필연성이 되었다(딤후 3:17)”고 주장하였다.³⁶⁾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김의환 박사는 이 대회에서, 성경의 고유한 권위를 강조하는 벨기에 신앙고백(the Belgic Confession)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대한 복음주의적 견해와 로마 가톨릭,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등의 견해들 간의 차이점들을 발표했다.³⁷⁾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이것들만을 우리 신앙의 규정과 기초(foundation)와 확인(confirmations)을 위하여 거룩하고 정경적인(canonical) 것으로서 받아들인다. 그것들에 포함된 모든 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것은 교회가 그것들을 그러한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기보다는 더욱 특별하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들은 그 자체에 있어서 증거를 하기 때문이다.”³⁸⁾

김의환 박사는 성경의 영감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초대교회 교부들, 로마의 클레멘트,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 그리고 이레네우스(Irenaeus) 등의 일치된 견해였다고 주장하고, 성경의 영감교리는 성경의 무오성(Inerrancy)과 무결함성(Infallibility)의 교리를 강조했다.

“무오성은 영감의 교리에서 나오는 당연한 추론이다. 영감은 성경의 오류들과 양립할 수 없다. 원초적인 자필(autographs)의 성경의 말씀들이 성령으로 영감된 바로 그 말씀들이라면,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오늘날 현재까지 모든 시대에 있어서 주장된 성경에 대한 태도이다.”³⁹⁾

또한, 김의환 박사는 성경의 무오성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교리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는 어떤 복음주의 진영의 학자들의 경향에 대해서 경계해야 함을 역설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복음주의자들로부터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한, 그래서 새로운 신학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 풍조를 듣기 시작하고 있다. 아마도 현대의 정통에 대한 이러한 불만의 근본적 이유는 학구적인 공동체 안에서 정통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얻

으려는 어떤 복음주의적 학자들의 소망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⁴⁰⁾

케네스 칸저(Kenneth Kantzer) 박사는 이러한 김의환 박사의 주장에 대하여 격려의 기쁜 어조로 성경의 무오성을 세계 복음화의 계속적인 축복과 관련을 시켰다.

“세계 복음화의 임무는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요구한다. 어떤 개인이나 한 집단의 경험들은 우주적 복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도리어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마 24:14). 우리가 전파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의견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다(딤후 4:2).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사 55:11), 그는 그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⁴¹⁾

3) 선교사역은 복음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

로잔대회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선교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점이다. 로잔대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존 스토틀(John Stott)는 성경적인 복음화라는 주제의 글에서 선교란 복음전도와 봉사를 둘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했다.⁴²⁾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타난 선교사명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받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임을 강조했다.

“최상의 속죄하는 희생의 예수의 사명(Mission)은 봉사생활의 최고점이었다. 그의 사역처럼 우리의 선교(Mission)는 봉사의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빌 2:7).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한다. 그는 우리에게 봉사의 완전한 모범을 제시하시며 그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종된 교회(a servant church)가 되도록 보내신다.”⁴³⁾

4) 효율적인 선교전략으로서 미전도종족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로잔대회에서 강조한 네 번째 주제로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들에 선교적 관심을 집중하도록 방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랄프 윈터(Ralph Winter)는 E-1지역

의 복음화(언어, 풍습, 문화 등 여건이 같은 지역 복음화), E-2지역의 복음화(언어, 풍습, 문화 등 모든 여건이 비슷한 복음화), 그리고 E-3지역의 복음화(언어, 풍습, 문화 등 모든 여건이 전혀 다른 지역 복음화)를 주장하였다.⁴⁴⁾ 곧 제1차 로잔대회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각 언어나 문화를 연구하는 선교전략을 개발하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5) 선교는 교회 성장에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로잔대회에서 특히 강조한 것으로 선교는 교회 성장을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박사는 선교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도 포함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유일한 구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의 제자들과 책임 있는 교회의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⁴⁵⁾ 피터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는 “복음전도의 목표는 개개의 신자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의 목표는 이 신자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메시아적 공동체인 교회의 책임 있는 교인들로 가입되도록 하는 것이다.”(The goal of evangelism is not only to make individual believers. The goal of evangelism is to persuade these believers to be incorporated as responsible members into the church as God's messianic community).⁴⁶⁾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우선 세계 여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여 선교사역이 유지되고 계속되게 하는 모든 사역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V. 제2차 로잔(Lausanne) 세계복음화대회(1989)

제1차 로잔대회가 열린 후 15년 뒤인 198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약 170개국 3,000여 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필리핀 마닐라에 모여 2차 로잔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의 결과로 나온 마닐라 선언문은 21개 항목의 신앙고백과 ‘전교회’(Whole Church), ‘온전한 복음’(Whole Gospel), ‘온 세상’(Whole World)에 대한 선언문을 담고 있다.

제2차 로잔 복음화대회는 1989년 7월 10일에서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리스도

각주

30) Scott Moreau, “1910년부터 2010년까지의 복음주의 선교” 선교의 에큐메니즘 회고와 전망.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역사와 에큐메니즘 연구원 편, (서울: Mission Academy, 2009), 264.
31) Howard A. Snyder,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327.
32) Howard A. Snyder,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327.
33)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5.
34) Howard A. Snyder,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339: The Church is God's creation, spiritual fact, cross-culturally valid, biblically understood and evaluated, validity determined by the spiritual qualities and fidelity to Scriptures, God's agent of evangelism and reconciliation, essential, eternal, divine revelation, and purpose to glorify God: The Para-Church is man's creation, sociological fact, culturally bound, sociologically understood and evaluated,

validity determined by function in relation to mission of the Church, man's agents for evangelism and service, expendable, temporal and temporary, human tradition, and purpose to serve to the Church.
35) Susumu Uda, "Biblical Authority and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84.
36) Susumu Uda, "Biblical Authority and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84.
37) Eui Whan Kim,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85-991.
38) Eui Whan Kim,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88.
39) Eui Whan Kim,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89.
40) Eui Whan Kim,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89.
41) Kenneth S. Kantzer, "Authority and

Uniqueness of Scripture Repor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993.
42) John R. W. Stott, "The Biblical Basis of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65-78.
43) John R. W. Stott, "The Biblical Basis of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67: "But this supreme atoning sacrifice was the climax of a life of service. He gave himself in selfless service for others. Now he tells us that as the Father sent him into the world, so he sends us. Our mission, like his, is to be one of service. He emptied himself of status and took the form of a servant (Phil.2:7). So must we. He supplies us with the perfect model of service and sends his church into the world to be a servant church."
44) Ralph Winter, "The Highest Priority: Cross-Cultural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215.
45) Donald McGavran, "The Dimensions of World Evangelization,"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109.
46) Peter Beyerhaus, "World Evange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288.
47)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90), 27: "God is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 . We affirm that every Christian congregation must turn itself outward to its local community in evangelistic witness and compassionate service."
48)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32.
49)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1900-2000 下』,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2007), 412.
50)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발제한 이종윤 목사의 발표 주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중요성' (The Primacy of the Local Church in the World Evangelization)이었다. 참고: J. D. Douglas,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69-72.
51) Pete Hammond, "The Laity," in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J.D. Douglas, ed. 81.
52)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town Commitment)은 복음과 상황, 242호(2010), 134-150를 참고하라: 케이프 타운서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케이프타운 서약 The Capetown Commitment

께서 오실 때까지 주를 선포하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모든 복음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에게'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라는 주제로 173개국에서 온 3,000여 명의 대표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논문발표와 모임을 가졌다. 이 대회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모임이었는데, 이 모임의 특징은 제3세계 교회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제2차 로잔대회에서 작성된 마닐라선언(Manila Manifesto)은 복음전도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다짐한다.

“하나님은 전세계에 전체적 복음을 전파하 시려고 전체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 모든 그리스천 공동체 회원들은 그들이 처한 주위의 사회에서 복음전파와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47)

그리고 세계 성경중심적인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고 지도할 것을 다짐하였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위치를 바르게, 자연스럽게 감당하도록 격려한다. 참된 전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말하는 것이다.”48)

제2차 로잔대회는 크게 3개 주제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모든 교회 구성원들의 선교적 책임’으로, 둘째는 ‘모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곧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선교사역을 펼쳐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셋째로는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내용으로 미전도종족을 포함한 선교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조동진 박사는 로잔언약과 마닐라 선언(Manila Manifesto)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이 두 문헌은 기독교의 기초를 풀어 가르치는 교재와도 같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해설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성경 전반의 요절들을 인용하면서 만들어진 전도 지침서와도 같은 문서”라고 평가하였다.49)

1)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복음선포 (The Whole Church)

제1부에서 다룬 모든 교회(The Whole Church)는 지역교회와 복음화의 사명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대표 이종윤 목사(를50)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교회의 선교사역을 논하면서 교회 내의 평신도의 선교적인 사역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피터 하먼드(Pete Hammond)는 현대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평신도의 사역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99퍼센트의 평신도의 선교 사역에 불참은 세계복음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평신도의 불참은 비성경적인 차별대우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평신도는 현대사회에서 불신자들을 그들의 직업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평신도선교의 효용성을 강조하였다.51)

2) 모든 복음을 전파하라(The Whole Gospel) 제2부는 성경에 나타난 복음선포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부분에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죄와 상실(Sin and Lostness), 그리고 타문화권 복음전도와 타종교의 도전들,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복음화의 협력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부분은 주로 로마서에 나타난 세상의 죄악과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인과 죄, 성령의 충만한 생활, 그리고 종말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3)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 (The Whole World)

세 번째 부분은 복음화의 대상으로 도시선교, 현대화의 영향력,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선교, 미디어선교의 중요성, 그리고 선교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각 분과마다 제2차 로잔대회는 다양한 425개의 워크숍을 열어서 각 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다양한 주장들을 발표하게 하였다. 그 워크숍의 중심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A.D. 2000운동, 연구방법과 복음, 타문화권 선교, 제이-제삼 세계선교, 평신도의 사명, 텐트 메이커, 여성과 복음사역,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청년 리더십, 기도, 신학과 복음화, 복음화에 나타나는 성령, 지역교회, 사회적 책임과 교회, 미전도종족, 도시선교, 무슬림 선교, 가난한 자들 선교, 민족복음화, 새신자 양육, 성경번역과 배포,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복음화의 모델, 정보공유, 건강과 치유, 대학복음화와 대학생, 복음과 문화, 현대화의 문제, 영적 전쟁, 복음을 위한 단순한 삶, 중국인의 복음화, 불교도들의 복음화, 힌두교도들의 복음화, 유대인들의 복음화, 현대 명목상의 신자 문제, 미전도 도시들, 어린이 전도, 가족전도, 이주민 선교,

스포츠 선교, 세계인구와 거주지 문제, 신학교육자들 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2차 로잔대회의 여러 분과에서 발표한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대회가 세계복음화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폭넓게 토의하고 발표한 선교대회였던 것을 볼 수 있다.

VI.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2010)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는 2010년 10월 16일에서 25일까지, 198개국 4,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다. 이 3차 대회는 특별히 지난 100년 전에 열렸던 에든버러 세계복음화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3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의 표어는 ‘세상과 자기를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 로잔대회의 정신은 겸손과 회개의 정신이었으며, 3차 로잔대회는 다원적이고 깨어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다.

본 대회는 로잔언약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2차 마닐라 대회에서 채택된 로잔운동의 정신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다’ (The Whole Church Brings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는 핵심 주제를 분명히 하는 대회였다. 곧 여기서 ‘온전한 교회’ (The Whole Church), ‘온 복음’ (The Whole Gospel), ‘온 세상’ (The Whole World)은 성경적 선교관으로 받으며, 이러한 로잔언약에 근거하여 제3차 2010 케이프타운 로잔대회는 이 세 가지 주제의 축을 근거로 하여 오늘날 세계복음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었다. 먼저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깨어진 세계에서 화해의 복음을 다루고, 온 세상은 타종교와 타문화, 그리고 지속적인 과제와 선교전략을 다루고, 온 교회는 교회의 순결함과 청렴함, 그리고 교회의 협력과 일치 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제3차 로잔대회의 자료들이 아직 자세하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지 않았지만, 3차 로잔대회에서 결의되고 선언한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town Commitment): 믿음과 행동에의 요청에 대한 선언’은 서서히 한국 교회에 소개되었다.52) 케이프타운 서약의 전문은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증거하는 과제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 둘째, 우리는 로잔운동의 핵심 전문인 로잔언약(1974)과 마닐라선언(1989)에 지속적으로 헌신한다”53)라고 3차 로

잔대회 역시 앞의 두 대회와 성격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증거에 철저한 헌신을 주장한다.

3차 로잔대회 참석자들이 만나서 참관 후기를 기록한 자료, <제3차 로잔대회 후기: 케이프타운 2010 톨아보기>54)에서, 1974년 1차 대회의 중심 리더인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존 스토틀(John Stott),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 르네 빠띠야(C. Rene Padilla) 대신에, 2010년 3차 대회는 국제로잔운동의장인 더글라스 버셀(Douglas Birdsall)과 린지 브라운(Lindsay Brown, IFES 국제복음주의학생회 출신 지도자), 크리스토퍼 퍼 라이트(Christopher J. H. Wright)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로잔세계복음화의 정신이 복음주의 진영의 엘리트들에만 머물렀으며, 일반 신자들에게까지 소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 반성이 된다고 하였다. 곧 로잔운동은 모든 계층, 모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경험해야 할 제자훈련의 여정으로 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II. 결론

지금까지 로잔세계복음화운동(Lausanne Movement for World Evangelization)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은 20세기 세계선교 흐름의 격랑기 중에서 성경적 복음화 운동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현대교회로 하여금 활발한 선교사역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빌리 그레함을 중심이 되어, 1966년 휘튼과 베를린 복음화 대회와 1974년 제1차 로잔세계복음화 대회,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1989)를 통해서 복음주의적 선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2010년 가을에, 제3차 로잔(Lausanne) 세계선교대회가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열렸다. 지난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의 세기’ (The Great Century) 이어서 20세기 위대한 교회 성장의 세기로 이어오면서, 1910년의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1910년)의 의미와 이후 100년 동안 국제선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와 선교신학의 좌경화에 대해, 성경 중심적인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와 로잔 세계복음화대회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선교를 위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끝〉

ent 믿음과 행동에의 요청에 대한 선언: 전문 (Preamble)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신자들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구원의 목적들에 기꺼이 우리의 헌신을 다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로잔운동의 비전과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금 확인한다. 제1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서약(136)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한다. 2.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137). 3.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138). 4. 우리는 아들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139). 5.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140). 6.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141). 7.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한다(143). 8.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한다(145). 9.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147). 10.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149). 53) Ibid., 134. 54) 황병구, "제3차 로잔대회 후기: 케이프타운 2010 톨아보기", 복음과 상황, 2010년 10월호, 124-133.

참고문헌

Beyerhaus, Peter, "World Evangelization and the Kingdom of God,"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75.

Clowney, Edmund P. "A Critique of the 'Political Gospel'," Christianity Today, Vol. 11, 1967, April, 28th, 11. Douglas, J. D.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75. Douglas, J. D. ed.,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Hocking, William E. Re-thinking Missions, A Layma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Hammond, Pete "The Laity," in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J. D. Douglas, ed.,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Henry, Carl F. and Stanley Mooneyham, eds., One Race, One Gospel, One Task, Vol. I,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67. Johnston, Arthur,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Chicago: Tyndale, 1978. Kantzer, Kenneth S. "Authority and Uniqueness of Scripture Repor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Kim, Eui Whan, "The Authority of the Bible and the Lordship of Chris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985-991. McGavran, Donald, "The Dimensions of World

Evangelization,"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109. Moreau, Scott, "1910년부터 2010년까지의 복음주의 선교" 선교의 에큐메니즘 회고와 전망, (장로회 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역사와 에큐메니즘 연구원 편, 서울: Mission Academy, 2009. Neill, Steven, "The Nature of Salvation," The Churchman, Vol., 89, No., 3, 1975, 230. Snyder, Howard A. "The Church as God's Agent in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327. Stott, John R. W., "The Lausanne Covenant,"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23. Stott, John R. W., "The Biblical Basis of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65-78. Uda, Susumu, "Biblical Authority and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84. Winter, Ralph, "The Highest Priority: Cross-

Cultural Evangelism," J. D. Douglas, ed.,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apolis: Worldwide Co., 1990, 215. Winter, Ralph, "It is Possible? Global Cross-Cultural Mission Collaboration: 1910-2010," Mission Frontiers, Jan-Feb. 2009, 9. Moreau, Scott "1910년부터 2010년까지의 복음주의 선교" 『선교의 에큐메니즘 회고와 전망』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역사와 에큐메니즘 연구원 편, 서울: Mission Academy, 2009. Tunehag, Mats, Wayne, Josie Plummer, 『Business As Missions』, (해리 김 외 1인 공역),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10. 방선기, "한국 교회와 로잔운동, 로잔정신" 목회와 신학, 1989, 10월호, 100-105. 조종남, "로잔의 역사와 신학" 목회와 신학, 1989, 10월호, 32-46. 조종남, 『로잔세계복음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0). 조동진, 『세계선교트렌드 1900-2000』,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2009. 최형근, "로잔운동의 역사, 신학, 비전" 개혁주의선교신학, (개혁주의선교신학회), 제 3권 1집, 2012: 39-60. 케이프타운 서약, 복음과 상황, 242호(2010), 134-150.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문화

문화와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다. 종교, 교리, 도덕, 윤리, 사상, 철학 이념도 아니고, 실체이며, 실재다(요일 1:1). 블레즐 파스칼은 어느 날 밤 성령 체험을 하고 <광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確信), 감격, 환희,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 첫째,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는 사람’이다. 둘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셋째, ‘선을 발견하려고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또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 사람이 있다. 하나,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외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Christian)으로 살기로 했지만, 쉽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세계관(Worldview)’의 문제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세계관은 어떤 문화 안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로서 대부분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문화

인류학자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문화란 한 사회가 가지는 특유의 학습된 행동 양식과 개념, 산물들이 서로 통합된 체계”라고 정의했다.

여러분은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문화는 사람의 손을 거친 인공적인 것을 말한다. 문화에 상대되는 말은 자연이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다. 세계관에는 기독교 세계관과 비(非)기독교 세계관이 있는데, 이 두 세계관은 충돌한다.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로이드 콰스트(Lloyd E. Kwaast)의 ‘문화의 4층(layers)구조’를 알아야 한다. 한 문화의 행동 양식은 그 문화 안에 있는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 안에는 행동 양식과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세계관이라는 또 다른 층이 존재한다. 가치는 그 안쪽에 있는 믿음의 영향을 받고, 믿음은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다.

문화의 4층 구조를 더 상세히 살펴보자. 동심원의 맨 밖에 있는 ‘행동 양식(Pattern of behavior)’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무엇을 행하는가?’라는 의미로 일을 행하는 유형화된 방식이다. 행동 양식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인식하고 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동심원인 ‘가치(Value)’는 맨 바깥

동심원인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요소다. 가치는 무엇이 좋은지, 유익한지, 최선인지에 관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에 대한 것이다. 한 문화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를 알아내는 것은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세 번째 동심원인 ‘믿음(Belief)’은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믿음은 무엇이 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 문화의 답이다. 믿음은 어떤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말한다. 믿음은 오랜 기간 문화 안에서 받아들여졌기에 쉽게 변화하지 않고, 믿음에서 가치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심층에 존재하는 ‘세계관(Worldview)’은 어떤 문화 안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대부분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와 같은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실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관이 자리 잡는다. 문화에서 이 영역은 실재에 대한 ‘궁극적 문제’ 즉,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다. 모든

문화의 핵심으로써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 많은 사람이 신념 차원에서 겪는 혼란을 설명해 준다. 한 사람의 세계관은 실제적인 가치와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신념 체계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인가? 비(非)기독교 세계관인가? 우리는 전 세계인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며 세계 곳곳에서 크게 위상을 떨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각 사람의 세계관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사회, 국가를 넘어 세계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우리 각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 5:15~17).



강은주 성도
(온누리세계관학교,
교양은평공동체)

특별기고

미국은 ‘동성 결혼’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는가?

2012년에 종교 예식을 매주 참석하는 사람들의 31%가 ‘동성 결혼’을 지지했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수치가 41%로 증가했다. 일반인 전체 지지율은 70%가 넘는다. 이달 초 <월드뉴스>에 실린 기사에서 로자리아 버터필드 박사는 ‘장기전’을 추구하는 활동가들이 선동한 ‘도덕 혁명’이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는지 설명했다. 특히 버터필드 박사는 1989년 출간된 책 한 권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신경심리학자 마셜 커크와 광고기획자 헨터 매드슨이 <파티가 끝나면: 미국이 90년대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려 했던 작전을 설명했다. 이 작전 중 일부는 미국인, 특히 기독교인들이 ‘동성 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었다.

버터필드 박사가 설명한 작전은 간단하고, 직설적이었다. 첫째, 커크와 매드슨은 활동가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행동만 하면서 게이와 레즈비언이 입는 피해에만 관심을 집중시킬 것을 조언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피해자로 여길 때까지 공개적인 성관계와 동성애적 소란 행위를 자제하자”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활동가들은 쉽게 항복하고 ‘게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조장할만한 ‘조종하기 쉬운 교회’를 찾아야 했

다. 둘째, 커크와 매드슨은 활동가들의 현안을 ‘동성애자의 권리’에서 ‘차별금지’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 셋째, 활동가들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고상한 역사’를 만들거나 주장할 필요가 있었다. 버터필드 박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독신이나 사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동원될 수 있었다. 넷째, 커크와 매드슨은 활동가들이 “가해자들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히스테리성의 산간벽지의 설교자’는 나치에 비유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원주의, 진보주의적이고 사랑만 한다는 목회자’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터필드 박사는 “커크와 매드슨의 책은 게이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로드맵, 작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셀 맥도웰과 필자가 2014년 출간한 <동성 결혼>에서도 이 책 <파티가 끝나면>의 중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만 해도 작전이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파티가 끝나면>이라는 책은 중요하지도 않고, 거의 알려지지도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 책이 출간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커크와 매드슨의 비전은 대부분 실현되었다. 대법원이 두 건의 역사적인 판결로 이를 도왔다.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결에서는 ‘동성 결혼’이 미국 전역

에서 법으로 규정되었고, ‘피해’의 법적 정의에는 LGBTQ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도록 (확대)되었다. ‘보스톡 대 클레이튼 카운티’ 사건에서 대법원은 1964년 민권법에 대한 해석을 확장해서 성소수자 정체성까지 포함하게 했다. 대법원에서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버터필드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운동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성 결혼을 위한 캠페인은 항상 법적인 면에서의 혁명이 아니라 도덕 혁명이었다.”

그런데도 이 혁명은 스스로 약속했던 해방을 결코 제공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터필드 박사의 말이다.

“운동가들은 결혼할 자유란 무언가 옳지 않다는 영혼의 고요한 속삭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동성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외부, 즉 기독교인이나 시골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목소리는 창조 때부터 이미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 악을 선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자유를 찾을 수는 없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살 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해방을 얻으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계속 도덕적으로 타협하는 교회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해방은 현실과 인간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시대의 독설과 위협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인인 자녀와 관계가 끊어진 기독교인 부모 등 LGBTQ 운동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정치가처럼 교육위원회와 입법부에 진실을 말해야 하고, 공직 영역에서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힘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신다면 교회가 개혁되고, 이 땅이 부흥하며, 동성애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회개와 신앙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분노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원문: breakpoint
(20240524)



존 스톤스트리트
(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이 시대 부모들에게

완전한 부모는 없다!



채경선 교수
(성산호대학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가 참 무겁다. 많은 부모가 남편, 아내라는 이름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에 아이를 맞이한다. 그 새로운 만남이 주는 기쁨 뒤에는 어김없이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라온다. 때로는 벅차도록 큰 행복과 기쁨이 있지만,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게 부모의 자리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독자들과 함께 부모의 자리에 대해 깊이 나누고 이해해 보고자 한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이름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시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먼저 질문을 하고 싶다. “부모가 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무엇일까?” 두려움과 무력감이다. 자녀를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 자녀가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 많은 부모가 무력감을 경험한다. 자녀가 태어날 때 작게 태어나면 작게 태어났다고, 자녀가 걷는 중에 다치면 다쳤다고, 자녀의 언어발달이 늦으면 늦는다고,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울리지 못한다고, 아이의 실패와 성장이 더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모는 모든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린다. 그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마다 무력감에 빠진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게 될수록 부모의 무게감이 커지기만 한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다. 실제 자녀에게 부모는 큰 영향력을 끼친다.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첫 세상이기 때문이다. 아이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세상이 안전한 곳인지, 불안한 곳인지 판

단하게 된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인지, 한 영받지 못하는 존재인지 정체성을 정립한다. 세상에 자녀 양육에 관한 수많은 책이 존재한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 세상에 나온 책들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전제로 한다. 부모에게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한다. 그 누구도 부모의 완벽하지 않음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부모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다. 부모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최고의 부모라고 자녀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의 실수 때문에 자녀에게 고생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성경을 보면 지독히 악한 아하스왕 밑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훌륭한 아들 히스기야왕이 나왔다. 누구도 완성된 부모가 없다. 부모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 불완전함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자.

첫째,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훌륭한 선물이다. 부모는 죄책감, 자신의 부족함, 완전하지 못함을 확인하게 된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선한 마음을 기다릴 수 있게 된다.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녀에게 그 은혜를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경험시켜줘야 한다.

둘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다. 부모라는 이름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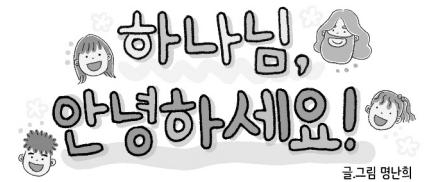
로 저절로 부모의 역할을 깨달을 수 없다. 부모 역할은 훈련을 통해 얻는 것이다. 부모가 완전하지 않고 훈련 중에 있기에 충분히 잘못하고 미숙할 수 있다. 부모 역시 미숙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녀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부모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싶어지는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이 해체될 때, 자녀의 방향과 반항에 힘이 들 때 등 그때마다 부모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신은 부모의 자리를 지켜왔고, 견뎌왔다. 그 자리에서 부모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당신은 소중하다. 부모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었을 여러 순간에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킨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부모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실수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불완전한 부모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 그럼에도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부모라는 자리를 허락하셨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Keep going’이라는 말이 있다. 가는 것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Don’t stop’ (멈추지 마라)과 유사한 말이다. 부모들이여, Keep going 하라. 완전한 부모는 없다. 완전한 부모가 없기에 자녀에게 완전함을 요구할 수 없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때로 시간과 용납이 필요하다. 서로 용납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의 긴 여정을 걸어가기를 바란다. 그 긴 여정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부모에게 1편 그림에도 불구하고 부모입니다’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 모기



우리 가족을 위한 ‘작은 책장’



〈어쩌다 학부모〉
김성중 저 | 두란노
| 17,000원

어쩌다 부모가 된 이들이 이제는 어쩌다 학부모가 됐다. 부모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녀가 벌써 커서 학교에 들어갔다.

어쩌다 학부모가 되어버린 이들은 학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다. 특히 대학 입시가 최대 목표인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학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도 있다. 신앙과 학업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신앙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 김성중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의 〈어쩌다 학부모〉가 그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기독교 학부모의 정체성에 대한 해석을 먼저 제시한다. 이어서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로 키우는 ‘신앙학업 통합유형’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기도도 소개한다. 부록에는 ‘부모와 자녀가 붙들어야 할 주제별 성경 말씀’을 실어두었다.

창조탐험대 참가자 소감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

창조탐험대를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녀온 뒤로 이번에 한 번 더 참가했다. 창조탐험대에서 주신 밥이 정말 맛있어서 더 즐겁게 캠프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창조탐험대 캠프에 참가하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론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되었고, 창조론의 증거를 찾았다. 나는 창조탐험대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창조론을 믿긴 하지만, 진화론도 어느 정도 옳은 게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창조탐험대 캠프를 통해서 진화론은 애초에

말이 안 되고, 증거도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창조탐험대에서 전주 예수병원박물관을 방문했다. 그 옛날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만든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박물관 자료 중에서 아이 몸속에 1천 마리가 넘는 기생충이 있었다는 내용을 봤는데 무섭다고 생각했다. 김제 금산교회도 방문했다. 교회가 기와집인 것도 신기했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가림막을 치고 예배했던 것도 신기했다. 진안 마이산에서는 돌이 파인 흔적

이 홍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성경이야기의 흔적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욱 재미있었다.

이번 창조탐험대에서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많이 했다. 다음에도 창조탐험대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하고 싶다.



장이정 학생
(양재온누리교회
중등부)

맛있는 말씀 해설

“...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사 6:9)

〈이사야〉 6장은 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했던 웃시아왕이 죽고,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보위에 오르는 시점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며 안정과 번영으로 이끌었던 왕의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앗수르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중동의 정치와 국제관계가 요동치는 혼란기로 접어들었다. 이 시점에서 이사야는 먼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 위에 천사들이 날고 있으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도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문설주가 흔들리며, 연기로 가득 찼다. 이사야는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 죽게 되었다”고 탄식한다. 그때 스랍 천사 중 하

나가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의 숯으로 대어 정결하게 해주면서 “네 죄는 사라졌고, 네 허물은 덮여졌다”고 한다. 은혜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된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한 이후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이사야는 자신이 가겠다고 자원한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외친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사 6:9).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마 13:13). 이때 예수님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사야의 부르심이 얼마나 어렵기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나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그 목구멍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시 115:4~8).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간다. 우상을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해서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마치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분별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것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게 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즘 시대를 다시 생각해 본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 우상을 섬기면서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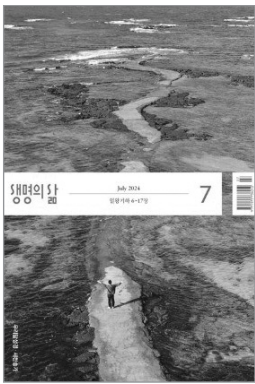
김태완 목사
(강남C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믿음으로 보는 능력의 하나님

7월 1~7일

〈열왕기하〉 6:1~8:15



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요단에서 나무를 베다. 한 제자가 빌려온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다. 아합이 죽은 후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엿본다. 아람 왕은 자신들의 내밀한 전략을 간파하고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한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워하는 사환(종)의 눈을 여셔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신다. 엘리사는 자신의 기도대로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를 왕이 있는 사마리아로 데려가 그들을 죽이는 대신 떡과 물을 먹고 돌려보낸다. 그 이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

묵상포인트 1:

비록 연약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북이스라엘에 우상숭배가 만연함에도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예언자)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거듭 거듭 건져 주신다. 일상을 돌보시고 위기에서 지키시

묵상포인트 2: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여겨졌고, 사회에서도 격리돼 비천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자를 통해 사마리아성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의 최초 목격자가 된 나병 환자들이 전한 복된 소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묵상하자.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성 안에서는 굶주림으로 자녀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긴다. 북이스라엘 왕의 분노가 엘리사를 향하고, 엘리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왕의 장관에게 ‘내일 이맘때에’ 상황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지만, 장관은 믿지 않는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굶주림을 면하고자 죽음을 각오하고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간다.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도망친 직후다. 아람의 빈 진영에서 먹고 마시며 전리품을 취하던 나병 환자들은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린다. 왕은 정탐꾼을 보내 확인하고, 굶주린 백성은 그곳을 노략질하러 몰려나간다. 이때 성문을 지키던 왕의 장관이 백성에게 밝혀서 엘리사의 예언대로 죽는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끝까지 돌보신다. 엘리사 때 수넬 여인이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다. 수넬 여인이 이야기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으로 자기 백성의 삶을 세세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자.

▶엘리사는 이전에 아들을 살려 준 수넬 여

인에게 7년 기근을 예언하며 거주지를 옮기라고 일러 준다. 여인은 블레셋으로 옮겨 거주하다가 7년 만에 돌아와 집과 전토를 찾고자 왕에게 호소한다. 때마침 게하시에게 엘리사와 수넬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여인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 준다. 아람 왕 벤하닷은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내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묻는다. 엘리사는 하사엘을 쏘아보고 울면서 그가 아람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 악을 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사엘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돌아가 벤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엘리사에게는 아람 군대보다 강한 하늘 군대를 보는 영적 시각이 있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일, 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현실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부정하다고 배척당하던 나병 환자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권능과 복된 소식을 왕궁에 전달했다. 내가 깨닫게 된 복과 은혜를 주변 사람과 적극적으로 나누자. 특히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자.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신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은혜가 우연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 은혜의 손길임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비공식 난민’을 위해서!

안산M센터 아람어예배공동체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아람어예배공동체를 찾아오는 아람인들은 모두 난민입니다. 하지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비공식 난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많은 일터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사용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출입국관리소에 채용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에 번거로운 일을 관리해야 하기에 많은 곳에서 이 난민들을 멀리합니다.

아람어예배공동체에서 많은 아람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 문제와 돈, 직장의 문제로 다시 좌절과 낙망에 빠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고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난민들이 직장을 잡고, 부지런한 삶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난민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 김예달 전도사(안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마 7:7).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약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에도 어떠한 응답도, 성취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기도 한다. 바로 그때 우리의 머릿속에 한가지 생각이 찾아온다. ‘아무리 기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혹시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려야 할까?’라는 생각이다. 한번 찾아온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염려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가 내뱉은 모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조건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나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 4:3).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신다.”

말, 심지어 투정과 불평까지도 넓은 관점에서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고백할 수 있다. 따라서 투정과 불평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때 안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듣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욕과 욕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도가 응답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기도제목을 점검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 점검하고, 만약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바로 잡기를 바란다.

기다림이 기도만큼 중요하다. 나의 욕심과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의 때가 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계속 기도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잘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실 것이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오현교 목사
(POLE2대학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관계 개선하는 세 가지 방법

아론 벡은 인간이 절망감을 가지는 근본 원인이 ‘왜곡된 지각’임을 확인했다. 절망감은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에게 절망감과 좌절감을 제공하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부정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는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자동적이라는 의미는 자신이 인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의미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다른 결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다.

인지적 왜곡으로 인한 자동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항상’, ‘늘’, ‘줄곧’, ‘앞으로도 계속’ 등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똑같이 부정적으로 행동할 거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버린다. 그 결론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이는 자신이 의지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다. 자동적으로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한 자동적 사고의 결론이 부부관계에서 매우 심한 갈등과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론 벡은 늘, 항상이라는 틀을 배우자에게 씌우는 것을 ‘과일반화’라고 했다. 때로 다른 의도로 행동하는 것까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고정화 혹은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과일반화를 하면 부부는 더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마음에서 늘 부정적인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기 때문이다. 그 부정적인 결론이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임의적 추론’이라

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곡된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부부관계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야 한다.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기억하고 마음에 쌓아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항상 실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매번 실망스럽게 행동하는 배우자도 없을 것이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배우자의 행동 중에 한 점이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좋다. 갈등이 있는 부부라도 그 관계를 돌아보면 조금이라도 좋았던 기억

“부부는 왜곡된 지각으로 인해 경험하는 절망감, 실망감에서 벗어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

이 있다. 물론 현재의 갈등이 너무 커서 모든 긍정적인 것이 가려져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경험이 부부관계에 남아 있을 것이다. 조금씩 긍정적인 점을 보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면들도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성될 것이다.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둘째, 부정적인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간혹 감정은 논리로 이해하기 힘든 진행 방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냥 미운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아무 이유 없이 배우자가 밉다”고 말하기도 한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성격이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왜곡된 지각이 활성화됐다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결론으로 강하게 마음을 낚아채 간다. 논리도 없고, 이성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쁜 감정과 생각이 배우자를 향해서 생성된다. 그러나 이 흐름은 자신에게도, 부부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없이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 반응인가?’, ‘나의 오해는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늘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정작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 남편이 정말 나를 무시해서

은 늘 옳기에 당신이 틀렸어”, “당신만 변화되면 우리 사이는 문제가 없어”라는 태도를 견지하기보다 서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부부는 상호작용하는 관계이기에 함께 노력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해야 한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네”, “당신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네!”라고 왜곡된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바로 잡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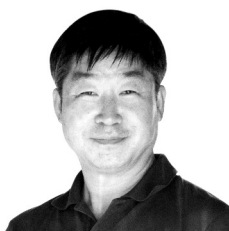
부부는 작은 변화를 칭찬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배우자에 대한 왜곡된 지각에 조금의 변화를 발견한다면 스스로 칭찬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의 행동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아내 혹은 남편의 그 말은 내가 못마땅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라고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면 그 점을 스스로 칭찬해야 한다. 물론 배우자의 변화를 위한 몸부림도 칭찬해야 한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한다. 부부는 왜곡된 지각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절망감, 실망감, 분노, 낙심에서 함께 벗어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왜곡된 지각이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황국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한국의 기독교문화 유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한국기독교
교역사와 문화유산>
저자)

여름이면 떠오르는 도시가 있다. 대구다. 대구는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무척이나 더운 도시다. 대구는 날씨 말고도 특징이 하나 더 있다. 교통이다.

대구는 경상도 내륙 가운데 있어서 예부터 교통 중심지였다. 교통이 편리한 대구는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구역이었다. 대구의 옛 중심에 청라언덕이 있고, 그곳에 대구선교부 흔적이 진하게 남아 있다. 여름만큼이나 뜨거웠던 대구 선교부의 활약이 궁금하다면 청라언덕에 가보자.

대구선교부가 있던 동산은 원래 야트막한 산이었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묻히던 곳이었다. 선교부는 이곳에 선교사 주택, 병원, 학교를 건립했다. 서러운 죽음만이 가득한 곳에 선교사들이 터를 잡으면서 생명의 땅으로 거듭났다. 선교사들은 대구읍성 남문에 있던 제중원을 동산으로 옮기고, 필요한 시설을 갖춰 나갔다. 학교가 세워졌고, 선교사 주택

10여 채도 차례로 들어섰다. 병원과 주택 외 벽에는 담쟁이 넝쿨이 타고 올라갔다. 담쟁이 넝쿨이 감싼 벽돌집은 매우 이국적이었다. 대구 사람들은 담쟁이 넝쿨이 가득한 이곳을 '청라(靑蘿)언덕'이라 불렀다.

청라언덕에는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의 모교회(母教會)인 대구제일교회가 있다. 1893년 베어드 선교사의 선교여행으로 시작된 대구지역 기독교 역사는 1896년 예배당 부지를 마련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베어드는 대구읍성 남문에 있던 주택 8채를 고쳐서 대구와 경북지역 최초의 개신교 교회 대구제일교회를 세웠다.

대구제일교회는 회도학교, 신명학교, 계성학교를 세워 한국의 미래에 투자했다. 제중원도 설립해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았다. 병 고침을 받은 이들은 예배당 문을 스스로 열었다. 교육과 의료가 기독교인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 그 후에는 예배 그 자체가 주는 위로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여인들이 그랬다. 시집살이 괴로움을 어디 하소연할 데 없고, 목 놓아 울 수도 없고, 이쁨도 없고, 글도 몰랐던 사회적 약자 여인들이 교회로 몰려왔다. 교회가 여인들의 이름을 지어주었고, 한글을 가르쳐 성경을 읽게 해주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부속물이 아니라 당당한 인격

체로 대접해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신분제로 설움 당하던 이들 또한 교회로 몰려왔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평등했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은 국가를 세울 방책을 찾아 교회에 왔다. 그들은 서구 국가들이 부강해진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신문을 접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유일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면서 울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책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교회는 민족운동에도 앞장섰다. 1919년 2월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이갑성이 대구로 내려왔다. 대구제일교회 목사였던 이만집 목사에게 거사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3월 3일 의전학생 이용상으로부터 독립선언서 200장이 이만집 목사에게 전해졌다. 이 독립선언서는 계성학교 아담스관에서 등사되어 대구와 경북지방으로 퍼져나갔다. 1919년 3월 8일, 비가 내렸다. 서문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대구제일교회, 남산교회, 서문교회 성도들과 계성학교, 신명학교, 성서학원 학생과 교사들이었다. 오후 2시경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 200명이 서문시장으로 뛰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김태련 조사

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는 찰나 일본 경찰에게 빼앗겼다. 소달구지에 올라가 이를 지켜보던 이만집 목사가 자신이 들고 있던 독립선언서에서 '공약삼장'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군중들은 태극기를 들고 비에 젖은 시장길을 달리며 만세를 외쳤다. 1천여 명의 군중들이 함께했다.

3월 9일 오후 3시 계성학교 학생, 군중 150명이 달성공원에 모여 만세를 부르려고 했는데 경찰에 제지당했다. 3월 10일에는 계성학교 교감 김영서와 학생 6명, 대구고보 학생 2명, 시민 5명이 만세 시위를 전개했다. 이 시위로 65명이 체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대구만세운동으로 210명이 목숨을 잃었고, 916명이 다쳤다. 3,200명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청라언덕에서 계산성당으로 내려가는 길을 '3.1만세운동길'로 제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청라언덕에는 대구제일교회만 있는 게 아니다. 대구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수많은 기독교 유적지가 있다. 선교박물관, 100주년 기념종탑, 동산의료원 사과나무, 의료박물관, 동산병원 구관현관, 교육역사박물관, 청라언덕비, 은혜의정원이 밀집되어 있다. 기독교 유적 탐방지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대구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신간 소개

한 줌의 용기 그리고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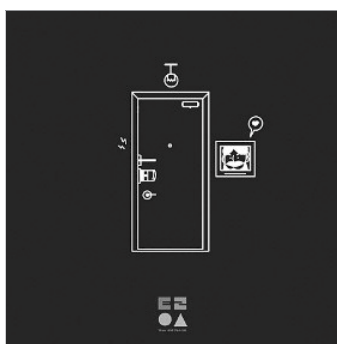
<살아 있길 잘했어>
서정희 저 | 워더북 | 19,000원

하지만 저자는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존재함의 기쁨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이 책을 펴낸 이유도 '이제 나는 끝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살아 있길 잘했어'라고 고백할 그 날이 곧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성도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하는 성도에게 이 책의 한 줌의 용기와 위로를 선물할 것이다.

오늘의 hymn

'찬송가, 찬가'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



'영접송(내 맘을 엮니다)'
팀록워십 곡

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참 놀랍다. 찬양 '영접송(내 맘을 엮니다)'을 들으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기를 바란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생명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랑은 흠이 없고, 순수한 사랑이다. 순종으로 지키셨기에 흔들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예수님이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이 찬양은 QR코드, 유튜브, 팸론, 지니, 벅스 등 음악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행복한 여름나기!

숨 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한국도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사들이 쏟아진다. 이상기후는 벌써 시작됐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가까이 왔다. 이제 모두가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만 한다. 뜨거운 여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본다. 첫째,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날씨가 더워지면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여름철 실내 권장 온도는 26~28도다. 둘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날씨가 더워진 만큼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 수밖에 없다.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셋째, 여름휴가를 대중교통 이용해서 간다. 대기오염 70% 이상이 승용차 배출가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승용차 주행거리 약 10%만 대중교통으로 이동해도 5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금 번거롭고 불편해도 모두의 행복을 위해 올여름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휴가 가자.

어!벤처스 10주년 대회 개막식 및 사전설명회

7월 4일 오후 6시 30분 성수 심센터 및 온라인

2024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이하 ‘2024 어!벤처스’) 10주년 대회 개막식 및 사전설명회가 7월 4일(목) 오후 6시 30분 성수 심센터(성동구 서울숲길 54)와 온라인(어!벤처스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찬양, 대회 개막 선포, 청년벤처를 위한 특강(씨엔티테크 전화성 대표), 나눔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7월 3일(수)까지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웹진(aventures.imweb.me)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벤처스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더불어 ‘2024 어!벤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벤처스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을 위한 벤처대회다. 7월 4일(목)부터 7월 29일(월)

오후 2시까지 모집 및 서류 접수, 7월 30일(화)부터 8월 12일(월)까지 심사 및 선발, 8월 29일(목) 오리엔테이션, 9월부터 11월까지 비즈니스 리더와의 멘토링, 10월 10일(목) 중간 워크숍, 12월 7일(토) 최종결선 대회를 치른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비영리법인 가능)다. 팀의 핵심멤버 1명은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서류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웹진에서 하면 된다.

이번 어!벤처스에서는 우수 기업에게는 1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기회와 부상이 주어진다. 부상으로 총 상금 3천만 원 상당의 상금을 수여하고(그랑프리 1천만 원), ‘크리스



천 CEO 리더십스쿨’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랑프리 1개 팀에게는 미국 탐방기회도 제공한다.

문의: venture4world@gmail.com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4 부채탈출119

재정문제 겪는 신청자 상시 모집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2024 부채탈출119’를 개최한다. 부채탈출119는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성도와 이웃들을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부채상담사역이다. 재정 상담을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james332023@gmail.com)로 보내거나 구글 링크(QR 참고)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가계재정상담신청서에는 신청자

또는 추천자의 개인 정보, 상담 필요 분야(부채 및 신용관리, 결혼자금 준비, 목돈 마련, 저축, 돈에 대한 심리 상태 등), 부채 발생 원인 등을 작성하면 된다.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부채상담은 대면 및 온라인 상담으로 2~3회 진행되고, 경제정의팀 소속 상담위원과 연결된다. 모든 개인 정보는 비밀보장 및 보호된다.

문의: 010-7636-3755



/ 홍하영 기자

온누리교회 선교 중보기도 연합모임

7월 6일 오전 1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온누리교회 선교 중보기도 연합모임이 7월 6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선교 중보기도 연합모임에서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선교 연합 중보기도의 능력’, 배행삼 목사(2000선교본부)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의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구글폼(하단 QR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선교 중보기도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선교 중보기도 연합모임은 2000선교본부 산하 권역별 중보기도팀에서 주최한다. 세계 각 지역 선교사들과 중보기도자들에게 선교 중보기도 연합운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다. 올해 9월 열리는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의 취지와 의의도 설명한다.

문의: 010-5428-8819

010-3797-3684



/ 홍하영 기자

온사랑합창단 소망교도소 문화행사

온사랑합창단 단원, 반주자, 가족 등 23여 명 참여

온사랑합창단이 지난 6월 25일(화) 소망교도소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온사랑합창단 단원과 지휘자, 반주자, 가족 등 23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문화행사는 클라리넷 연주, 소프라노 솔로, 바리톤 솔로, 색소폰 연주, 합창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신재영 장로(온사랑합창단 담당)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현장에서

절감했다”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뛰어넘어 기쁨으로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온사랑합창단에서 여성 합창단원과 남성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은 문소현 총무에게 전화(010-8784-6695)로 하면 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 개강

7월 27일~8월 24일 매주 토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가 개강한다.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www.father.or.kr)나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

비는 12만 원이다. 본부 173기 두란노아버지학교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등을 주제로 강의와 가정 회복프로그램 등이 이어진다. 문의: 010-2657-1875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

CGN 신규 프로그램, 14주 동안 매주 월 방영

CGN 신규 프로그램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가 지난 6월 24일(월) 첫 선을 보였다.

이계호 교수의 태초건강 프로젝트는 14주 동안 매주 월요일 CGN TV 오전 9시 50분, 유튜브 오전 9시, 기독교 OTT ‘풍당’ 오전 12시에 방영한다.

태초건강 프로젝트에서는 <태초 먹거리> 저자 이계호 교수가 생활

습관을 짚어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먹거리를 추천한다. ‘매일 먹는 먹거리에서 삶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흙과 물의 성분과 같은가’ 등의 질문에 성경적인 해설을 덧붙여 설명한다.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 농업인 90여 명에게 인식개선교육

NGO 더멋진세상이 이달 초 아프리카 세네갈 3개 마을(쉴렌, 간자이, 마하나)에서 온 농업인 90여 명에게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NGO 더멋진세상의 지원 이후 마을 주민들이 자주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마을을 운영하도록 한국의 농업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 지부에서는 국제기구 GGGI(글로벌녹색성

장기구)와 함께 지난해부터 ‘농업가치사슬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위기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교육이다. 지난해에는 기후교육과 경제교육을 했고, 올해는 토마토, 감자, 피망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는 농업기술교육을 할 예정이다.

안산M센터, 온누리 다국어 상담실 오픈

안산M센터 ‘온누리 다국어 상담실’이 문을 열었다. 지난 6월 26일(수) 안산M센터 만나홀에서 온누리 다국어 상담실 오픈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노규석 목사(안산M센터)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며, 여호와와 은혜를 선포하자”면서 “온누리 다국어 상담실이 이주민들의 회복을 돕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누리 다국어 상담실은 정성미 실장과 이스베트레나 팀장, 중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는 사모, 여성 선교사 12명이 섬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안산M센터에서는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공유학교 ‘이음한국어교실’과 희년의료공제회와 함께하는 의료사역 ‘Medi Call’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010-3866-0918

깜놀 히브리어 강좌

7월 8일~29일까지 온라인

두란노바이블칼리지 ‘깜놀 히브리어’ 강좌를 7월 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히브리어에 관심 있거나 배우고 싶은 성도와 목회자가 대상이다. 강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1강씩 업로드된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깜놀 히브리어 강좌는 히브리어 알파벳과 모음, 음절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노래와 그림 영상 등으로 누구나 쉽게 히브리어를 익힐 수 있다.

문의: 02-2078-3456

6월 세례자

■서빙고
노우창 680920
민혜숙 680720
박성진 820609
신혜선 760418
윤선경 911106
임재한 760622
장성근 721227
정유진 720404

입교
이서준 070705
유아
김지음 230402
김진규 박현지
김태일 220922
김경년 김민주
이서우 220104
이민기 장진희

■양재
문미숙 710111
입교
김재연 020925
노다혜 950801
유아
김이안 221226
김희성 이수희
김하울 191009
김아름성진 최정은

백이준 190517
백준오 박두리
이지은 210510
이현관 정다은
전하진 210422
전현준 김영은
차세울 231108
차우재 윤지영

<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이예은 920905
입교
강아영 850123
김승준 950118

■J4U
서정미 800309

■SNS
구지준 960120
권오영 901225
김태현 890121
우경식 921216
허주연 981129
입교
강나현 951106

장로칼럼

부담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이경호 장로
(부천온누리교회)

지난 3월, 10기 장로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매주 화요일 퇴근 시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왕복할 생각에 아찔했다.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수료식을 했다.

지난해까지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던 나는 여러 번 장로아카데미 제안을 거절했다. 도저히 물리적인 시간과 마음의 시간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10기 장로아카데미 제안이 왔을 때는 더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마지못해 승낙했다. 비록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시작해 보기로 했다.

지난 3월 12일, 장로아카데미 개강모임을 마치고 주일에 교회에 갔다가 한 동기 장로님을 만났다. 그 장로님으로부터 적잖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동기 장로님이 본인은 지난해 온라인으로 장로아카데미를 수료했다고 했다. ‘아뵤싸, 나도 지난해에 해야 했었나? 온라인으로 장로아카데미에 참석하면 매주 화요일 퇴근 시간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수고는 안 해도 될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큰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해 온라인으로 장로아카데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됐다. 힘들어도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10기 장로아카데미에 참석한 게 정말 기쁘고 감사했다.

장로아카데미 개강 때만 해도 처음 뵈는 장로님들이 많아서 서먹했던 기억이 난다. 장로들끼리 모이니가 더 어색하고, 분위기가 무겁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행위원 장로님들의 헌신과 섬김에서 따뜻함을 느꼈고, 금세 분위기

가 친근해졌다. 은근히 화요일 저녁이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특히 우리 조 실행위원 장로님의 섬김이 큰 감동이었다. 늘 일찍 오셔서 모임을 준비하시고, 마치면 우리가 먹고 남은 쓰레기를 직접 정리하셨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웠다.

매주 진행된 주옥같은 강의도 좋았고, 다양하고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는 간식과 도시락에도 마음을 빼앗겼다. 매주 장로아카데미에서 행겨주시는 간식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가 우리 순예배 간식으로 준비했는데 순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같은 조 장로님들과 식사 교제하고 삶을 나누면서 가족 같은 친밀감이 생겼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뵈면 목례 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달려가 안을 정도의 친밀감이다.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감사하다.

10기 장로아카데미 백미는 ‘성경읽기’였다. 매일 저녁 성경읽기 숙제를 하는 게 만만치 않았다. 일단 총무로서 매일 조원들에게 성경읽기 숙제를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성경읽기 진도가 서로 다른 조원들의 완료 여부를 취합해서 총무 단체채팅방에 계속 알리는 것도 가볍지 않았다. 무엇보다 매일 50분 이상 성경을 읽는 시간을 만드는 게 어려웠다. 처음에는 1배속으로 듣다가 시간을 줄여보겠다고 1.4배속으로 듣고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 하려면 때려치워라”고 뼈를 찌르는 충고를 던졌다. 민망한 나머지 머쓱하게 웃으며 남은 영상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실행위원 장로님들의 격려로, 조원 장로님들과의 동행으로 83일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부담으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했다. 부족한 장로지만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지 배울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장로아카데미를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권사칼럼

협상의 기도

김명희 권사
(서산온누리교회)

2년 전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떠났다. 나는 남편을 보내고 3일 뒤 쓰러져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경추척수증’이라는 병으로 장애 등급까지 받았고, 아직도 치료받고 있다. 교회는 1년 만에 겨우 걸을 수 있을 때 가게

되었다. 스스로 걸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가던 날이 참 감사하고, 가는 길 자체가 은혜였다.

지난해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하나님께 협상의 기도를 드렸다. 무모해 보일지 모르는 기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였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가지만, 저를 사용하시려면 어디든 자유롭게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 두 발로 거닐며 아웃리치를 무사히 마쳤다. 사실 지금도 온몸에 통증이 가득하다. 주치의의 별 때면 진통제를 처방해 주시는데, 나는 먹지 않았다. 사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 지금까지도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아픈지 다 아시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나를 먹고, 입히고, 죽이고, 살리고, 아픈 곳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아픈 곳에 내 손을 얹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으셔서 녹슨 자동차에 기름을 부어 엔진이 살아나듯 나의 허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나는 영광과 혼이 중심을 빠르게 잡으려 애쓰고 있는데 내 육신의 중심이 흔들린다면 내가 어찌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번에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픈 내 허리에 손을 얹었다. 기도할 때 치유의 기름이 내 아픈 곳에 흐르는 것을 느꼈다. 폭포수 같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날 이후 여러 아픈 곳 중에서 가장 아팠던 허리 협착이 나타났다. 차 속에서도, 소파에 앉아 있어도, 허리를 돌려도 더는 통증이 없고 자유로워졌다. 할렐루야! 다른 아픈 곳도 의사 되신 하나님께 맡기려 한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 저를 쓰시려면 고쳐 써 주세요”라고 협상의 기도를 올려드리려 한다.

사실 하나님께 기적과 같은 이 일을 간증하겠단 약속해 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마리아행전을 통해 기억나게 하셨다. 마리아행전에서 이한영 교수님이 “기도는 교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드렸던 협상의 기도가 떠올랐다. 협상도 교제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손해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와 협상도, 논의도 해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께 협상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를 바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늘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의 간증을 읽는 성도님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기도의 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광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협상의 기도를 드려보자.

지난 주일 나는 교회 계단 난간을 잡지 않고 큰 가방을 든 채 씩씩하게 3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멋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말이다. 아직 온몸 곳곳에 흔들림이 있고, 많은 통증이 괴롭히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니까 말이다. 아픈 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 협상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사도행전>의 비전 꿈꾸다!

박철웅 목사
(양지온누리교회)

지난 12년 동안 양지온누리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지온누리교회는 국내 캠퍼스 교회 중에서 최근에 창립한 영종온누리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다. 양지온누리교회는 나이가 많지 않아도 온누리교회 39년 역사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故 하용조 목사의 선교 영성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캠퍼스이기도 하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양지온누리교회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Acts29 비전빌리지에는 온누리교회의 선교

사 훈련을 책임지는 ‘선교훈련원’과 교회의 파송 선교사를 지원하는 ‘국제선교회(TIM)’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선교 비전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양지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국내에 있는데 마치 선교지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많다고 고백하곤 한다. 이러한 선교 체험이 가능한 교회가 바로 양지온누리교회다.

양지온누리교회에서는 매일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의 선교를 위한 ‘시안기도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 훈련생들과 선교지에서 돌아와 훈련받는 선교사들을 교회와 순예배에서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들과 교제를 통해 선교지의 생생한 소식들을 접할 수 있다. 학기별로 진행되는 다락방 모임에서도 하용조 목사의 묘소와 기념 도서관을 방문해서 그 선교 열정과 비전을 느낄 수 있다.

양지온누리교회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박물관’을 방문하면 이 땅에 뿌려진 순교의 흔적들을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온누리교회의 사도행전적 선교 비전을 공동체 비전으로 고백하게 된다. ‘사람이 자주 만나 사귀다 보면 닮게 된다’는 말처럼, 삶에서 자주 선교를 접하면서 <사도행전>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고백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선교 비전이 없었다면, 양지온누리교회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 자연 친화적인 하나의 전원 교회에 머물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전원 교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래 목회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교회는 전원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교회에는 더 중요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 비전을 놓쳐 버렸을 것이다. 교회를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영적 성장이 멈춰 버렸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Acts29 비전빌리지에 양지온누리교회가 있다는 것은 가끔 동거하는 불편이 있지만,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다.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양지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선교 비전을 꿈꾸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의 말씀처럼, 양지온누리교회가故 하용조 목사의 선교 비전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로 지난 12년을 달려왔다. 이제는 이 비전을 품은 양지온누리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다음 세대에게 <사도행전>의 비전이 전수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12년을 달려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지난 12년 동안 양지온누리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전한 여름 사역!

여름 아웃리치 및 여름 캠프 안전 유의 사항

2024년 온누리교회 여름 사역이 막을 랐다. 여름 아웃리치는 '그리스도의 담 대한 증인', 여름 캠프는 '하나님의 용 사, 다윗'을 주제로 7월과 8월 이어진 다. 여름 사역은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 이다.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여름 아웃리치 및 여름 캠프 안전 유 의 사항'을 보내왔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숙지해서 안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름 사역이 되기를 소망 한다.

/ 편집자주

여름 아웃리치 및 차세대 여름 캠프 안전 우선순위

여름 아웃리치 및 차세대 여름 캠프 안전 우선순위가 있다. 각 팀(부서)에서 안전관리 자를 지정해서 조건과 상황에 맞는 안전 활 동을 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팀(부서)원의 연락처를 유지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원 활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각 팀(부 서)원은 온열, 식중독 예방조치 및 여름철 건 강 유의 사항을 숙지해서 하나님이 각 팀(부 서)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

1. 안전 우선순위별 세부 내용

1) 각 팀(부서)별 안전관리자 지정

각 팀(부서)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지 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담당목회자, 담당 장로, 선교팀장, 담당 코치나 총무 중에 지정 할 수 있다. 경험과 지식을 구비한 팀(부서)원 중에서 지정하면 유익하다. 안전 관련 종사 자나 리더십이 있는 팀원 중에서 지정하면 좋다.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 요약 전파
- ② 현지 안전 위해 요소 확인 및 전파
- ③ 참가자들의 건강상태 수시 확인
- ④ 응급처치키트 및 상비약 준비
- ⑤ 수시 안전교육 시행
- ⑥ 비상연락망 유지

2) 비상연락망 유지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안전 위해 요소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여름 아웃리치와 차세대 여름 캠프 출발 전 팀원들의 비상연락망을 작성 및 유지하고, 스마트폰에 폴더를 생성해서 저장해 두면 좋다. 비상연락망에는 선교본부 나 차세대본부 담당자 또는 아웃리치에 참가 하지 않은 소속 공동체 리더십 연락처를 포 함하고, 아웃리치 대상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 연락처를 포함하면 유익하다.

3) 주요 안전 위해 요소

(1) 폭염

폭염은 30도 이상 무더위가 계획되는 현상 을 말한다.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면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데, 일 최고체감온도가 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면 '폭염주의보'가,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내려진다.

①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행동 요령

-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몸의 체온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온열질환 유발
- 온열질환 환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 집중 발생
- 온열질환은 가벼운 열발진부터 사망에 이르는 열사병까지 증상 다양
-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구토, 어지럼증, 고 열, 근육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서늘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염분이 들어 간 시원한 음료를 마시게 함
- 주류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 용을 일으키므로 피하도록 함
- 증상 개선되지 않고 의식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부르고, 환자 몸 차게 식혀줘야 함

② 폭염 대비 안전 수칙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기상 상황 수시 확인
-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정전사고 발생 대비 순전등과 부채 미리 준비
- 물 사용량 급증으로 공급 중단 대비 생수 준비 및 생활용수 욕조에 받아둠
- 창문에 커튼이나 천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 최대한 차단
- 장거리 운전할 때 도로 변형으로 교통사 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

(2) 식중독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등이다. 원인은 유 해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동식물(곰팡이, 독버섯, 복어), 유해물질(조리기구, 포장)에 의한 식중독이 있다. 30초 이상 세정제 사용 해 손을 씻거나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먹 고, 물은 끓여 마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① 예방수칙

- 지하수 끓여 먹기, 조리 및 섭취 전 손 씻기 및 청결 관리
- 육류, 해산물 등 생식 금지, 야생 채취 버섯 및 열매 섭취 지양
- 남은 음식 냉장고에 안전 보관, 상온 3시 간 이상 방치된 음식물 폐기
- 구분사용: 날 음식과 조리 음식 구분, 칼 과 도마 구분
- 세척 소독하기: 조리 기구는 깨끗이 소독 세척해야 함
- 보관 온도 지키기: 냉장(5도 이하), 냉동 (영하 18도 이하)

(3) 기타 안전 위해 요소

① 해외 출입국

올해 여름에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거 로 예상된다. 변경된 출입국 관련 내용과 해 외안전 정보를 숙지한 다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해야 한다.

- 전염병 및 감염 우려 지역 방문 자제
- 현지 의료실정 파악하고 필수 의약품 등 사전 확보
- 말라리아 예방 접종 등 방역 관련 필요 사전 확인 및 준비
- 테러 위험, 분쟁지역 등 여행경보단계 사전 숙지 이후 이동 경로 설정
- 방문지 기상 여건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한 복장 준비
- 도난 및 강도 대비 개별 이동 지양, 귀중 품 분산 보관

② 차량 운전 및 이동

대부분 아웃리치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 하게 된다. 특히 해외 아웃리치의 경우 현지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서 더욱 운전애 주의를 요한다. 현지 선교사와 주기적인 접촉을 통 해 이동 경로 대한 안전 위해 요소를 판단하 고, 차량 점검을 해야 한다.

- 휘발성 액체나 기체가 담긴 제품 차내 방치 금지
- 엔진 공회전 상태로 장시간 에어컨 가동 금지(1시간 이상)
- 노후 차량 배선계통 등 사전 점검 후 사용
- 노상, 외부 공간 주차 때 창문 일부 개방
- 밀폐된 차량에서 수면 금지
- 전세버스의 경우 차량 노후도 점검(차량 검사증, 타이어 마모 등)
- 장거리 운전할 때 2시간마다 휴식

③ 야외 활동

산이나 들, 강이나 바다 등에서 활동할 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돌발 상 황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 소홀하면 그 피해 가 커질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길 을 잃거나 고립될 수 있고, 뱀에 물리거나 벌 에 쏘여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며, 진드기 등 에 물려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 어두워지기 전에 안전한 장소로 복귀
- 해안 갯벌이나 섬 방문시 만조시간 숙지
- 계곡에서는 국지성 강우 대비 범람 가능 성 대비
- 뱀에 물린 부위에서 5~10cm 떨어진 곳을 끈으로 묶고 병원 이송
- 벌떼 공격을 받으면 머리 감싸고 30m 이동, 곤충용 퇴치 스프레이 사용
-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 제거, 항히스타민제 복용 및 병원 치료
- 쓰쓰가무시병 등 유행 지역에서는 야외 노출 행동 자제

④ 장마 및 홍수

장마로 누적 강수량이 많거나 집중호우가 내리면 저지대 주택 등이 침수되거나 하천 제방이나 도로가 유실되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사태 범람 등으로 재산 손 실은 물론이고, 인명 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

- 폭우로 침수가 예상될 때 누전차단기를 작동해서 전기 공급 차단
- 손이 젖으면 고무장갑 등을 활용해서 전

기 공급 차단

- 침수 때 가로등, 교통신호 제어함 등 공공 전기 설비 접근 금지
- 침수 고립 이력이 있는 지역 진입 자제
- 도로 유실 위험이 있는 산복도로 및 제방 도로 통행 자제
- 차륜이 2/3 이상 물에 잠긴 도로 구간 진입 금지

⑤ 말라리아

말라리아(Malaria) 또는 학질은 모기가 감 염병으로 매년 2~3억 명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질병이다. 주로 열대지방에서 발병한다. 초기 징후들은 독감 증상, 염증, 위 장염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두통, 열, 관절 통 증, 구토, 용혈성 빈혈, 황달, 소변에서의 헤모 글로빈, 망막 손상, 경련이 나타난다.

- 국내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 야외 활동 자제
- 야간 외출할 때 긴 소매 및 긴 바지 착용. 모기 기피제 뿌리기
- 욕내 모기 침입 방지를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 권고
-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 있으면 즉시 진료받을 것
- 말라리아 유행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 은 입국 2주 전부터 출국 후 4주까지 예방 약을 계속 복용. 단, 항말라리아 약제 중 아토바쿰온과 프로구아닐은 예외적으로 2일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고 출국 후 7일 까지만 복용하면 된다. 아직 말라리아에 대한 백신이 없으므로 주의.

⑥ 심정지 대비 심폐소생술 절차 숙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

- 어깨 두드리며 의식과 호흡만 확인한다.
- 의식과 호흡이 없으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가슴압박 30회 실시(인공호흡은 권장 요소로 하지 않아도 된다).
-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 까지 계속해서 시행한다.
- 의식과 호흡 확인은 어깨를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한다.
-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요청 은 특정인을 지명하여 요청한다.
-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면 환자의 상의 를 벗긴 후 상체에 패드를 부착한다.
- 심장 리듬 분석 간 환자와 접촉하지 않아 야 한다.
- 심장 충격 후 충전 완료 시까지 상부 압박을 지속한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은 각 팀 의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에 한계가 있다. 따 라서 팀(부서)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위원 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고, 현지 실정 에 맞는 안전 관련 사항을 수시로 최신화해 서 수시로 팀(부서)원들에게 전파하는 게 좋 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청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시온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2:00 신동아 2층 믿음홀 / 몽골어예
배 14:0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3:00 온누리청소년문화
센터 4층 강의실1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
어예배 14: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2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팡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
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
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
팡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
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 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
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를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팀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예수사랑부 드러머 교사 모임
시간: 주일 11:30-12:30 한동홀
문의: 김영선(010-3474-7635)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임
대상: 초1~중1(타렌파스, 타고인 지원 가
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문의: 김미현(010-8285-6435)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
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
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비전홀B
문의: 010-6422-837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아웃리치 의료진 모임
일시: 8월 9일(금)~13일(화)
장소: 네팔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브릿지33+ 예배팀 모집
분야: 메인 건반
사례배: 협의 가능
문의: 김혜련 예배팀장(010-9699-
5731)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출판2부 출판편집 디자이너(계약
직) 1명
형태: 계약직(약 15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본사)
접수: <http://www.duranno.com/recruit>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
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
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
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
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
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
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
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이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
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
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
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
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
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
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
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
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
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신약의 세계로

오십쇼2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돌아온 성경 바람잡이 조혜련 집사의 쉽고 재미있는
신약 성경 브리핑!

게스트 소감

3편, 4편

게스트 김우주

“사울과 베드로가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5편, 6편

게스트 김지선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CGN 유튜브, **풍영**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CGN TV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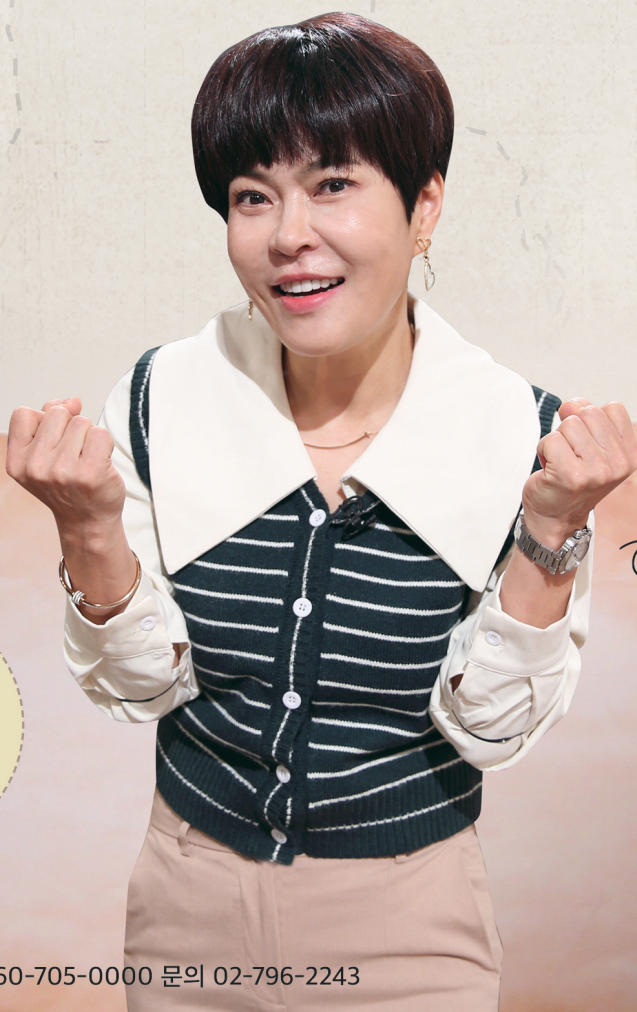
오십쇼2
최신판 바로보기



고정 게스트
최복순 반장



성경 바람잡이
조혜련



오십쇼